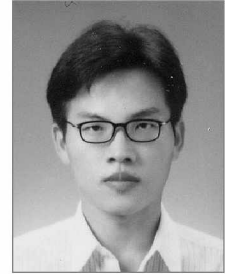




# 환경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의 제정 동향

- ISO/TC 207/SC, 회의 참석 결과 -



**박종일**  
한국인정원  
연구개발팀  
02-2113-8500

## 회의 개요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5일간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에서 말레이시아 과학기술 혁신부와 말레이시아 표준협회의 공동 주최로 국제표준화기구 환경경영기술위원회 의장자문 그룹 및 분과위원회 회의(ISO/TC 207 Chair's Advisory Group and Subcommittee Meetings)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ISO/TC 207 회장인 캐나다의 Daniel Gagnier를 비롯하여 30여개국 대표단 130여명이 참석하여 각 분과위원회별 토론에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한국인정원 등에서 총 8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기간에는 ISO/TC 207 산하의 6개 SC와 1개 WG, 1개 TCG의(표 1 참조) 총 8개 그룹 중 SC 1, SC 3, SC 5, SC 7 네 개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또한 특별 세션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원료 취득으로부터 수송, 제조, 유통, 소비 및 폐기까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정보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이슈에 대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Carbon Trust사의 Graham Sinden 박사를

비롯하여 스웨덴, 일본,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에서 각국의 탄소발자국 관련 활동 동향과 탄소발자국 국제표준의 비전에 대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워크숍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량화 및 검증을 위한 최근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하듯,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표단이 참가하여 경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직명	담당 분야
SC 1	환경경영시스템 관련 표준 제/개정
SC 2	환경심사 관련 표준 제/개정
SC 3	환경리벨 관련 표준 제/개정
SC 4	환경성평가 관련 표준 제/개정
SC 5	전과정평가(LCA) 관련 표준 제/개정
SC 7	온실가스 및 관련활동 표준 제/개정
WG 7	제품규격의 환경측면 관련 표준 제정
TCG	TC 207 표준 옴니 및 청의 검토

표 1 - ISO/TC 207 조직구조

## 분과위원회별 주요 회의 결과

이번 회의기간 중 각 분과위원회에서 다룬 주요 의제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친환경제품설계(Eco-Design)와 환경경제효율성(Eco-Efficiency) 관련 국제표준의 제정 안건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는데, 특히 친환경제품설계의 경우 '제품의 환경성 개선을 고려한 설계방법'이 아닌, 환경경영시스템과 유사하게 '친환경제



품의 설계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으로 개발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조직에 대한 인증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 받고 있다.

분과위원회/SC별 작업그룹(WG)	담당 과제
SC 1/WG 4	친환경제품설계(Eco-Design) 국제표준 신규 제정
SC 5/WG 7	환경경제효율성(Eco-Efficiency) 국제표준 신규 제정
SC 7/WG 1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기준(ISO 14066)
국제표준 신규 제정	SC 7/WG 2

표 2 - SC별 주요 회의 주제

이하에서는 우리 원 대표가 참석했던 SC 7/WG 1, WG 2 및 SC 5/WG 7 회의의 주요 결과들 요약하여 정리해 본다.

### SC 7/WG 1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인 ISO 14066 규격의 개발을 담당할 SC 7/WG 1에서는, ISO WD2 14066 작업문서안을 위원회안(CD)으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각 회원국들이 제출한 167건에 이르는 많은 검토의견들을 심의하였다. 그러나, 의견 검토 과정에서 WD2 문서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14065 문서나 14063 문서에서 일부 검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이 이미 다루어짐에 따라, 국제표준간의 중복성 배제에 대한 의견이 전반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SC 7/WG 1에서는 새로운 작업문서인 ISO WD3 14066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회의 기간 중 심도 있는 토론과 소규모 작업그룹회의를 통해 WD3 국제표준의 기본 구조와 내용을 확정하였다. 또한 WD3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Editing Group을 구성하고 작업을 진행하여, 오는 6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될 예정인 ISO/TC 207 총회 이전에 WD3를 확정하고 의견 수렴절차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 SC 7/WG 2

이번 회의 기간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분과위원회 회의는 SC 7/WG 2가 주관하는 탄소발

자국(Carbon Footprint) 관련 국제표준인 ISO 14067 제정 회의였다. 이 회의에는 약 50여명의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국제표준의 개발방향을 모니터링하고 각국의 입장을 활발히 표명하였다.

ISO 14067 표준의 실질적인 개발에 앞서 스웨덴과 일본 등에서 각국의 관련 활동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탄소발자국과 관련하여 기존에 개발된 국가표준으로는 PAS 2050 표준이 있으며, 일본은 2008년 하반기에 시범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하여 올해 1월에 탄소발자국 관련 기술시방서(TS, Technical Specification)를 발행하고, 향후 약 3년간 시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WRI/WBCSD 또한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탄소발자국 단체 표준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SC 7/WG 2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탄소발자국 국제표준을 '제품 탄소발자국 정량화(Part 1)'와 '의사소통(Part 2)'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개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각 부분의 표준 개발을 담당하기 위한 초안 작성 그룹(Drafting Group)을 구성하였다. 정량화 부분에는 SC 7/WG 2의 공동의장인 에너지관리공단 오대관 박사 외에 16여명이 배정되었으며, 의사소통 부분에는 아주대학교 이건모 교수를 포함한 10여명이 배정되어, 각 그룹별 초안을 2월 말까지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후 4월에는 WD1를 취합/완성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회람을 실시하고, 이집트 총회기간에 WD1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 SC 5/WG 7

SC 5/WG 7은 2008년 6월, 콜롬비아 보고타 회의 결의안에 따라 환경경제효율성 평가 규격인 ISO 14045를 개발하기 위하여 결성된 작업그룹이다. 이 작업그룹의 담당 내용인 환경경제효율성(Eco-Efficiency)의 국제표준 개발은, 이미 환경경제효율성의 개념과 방법론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어 정착된 시점에서 진행되었으므로, 회의 기간 중 WD1의 개발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즉, 회의를 통해 표준의 기본

구조와 내용을 확정 지었으며, 세부 내용을 작성할 Task Group을 구성하여 카이로 총회 전에 WDI에 대한 의견수렴을 완료할 예정이어서, 2011년 예정이었던 국제표준 제정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점

이번 회의 전반을 통해 온실가스 관련 정량화 및 제3자 검증체제와 관련된 국제표준의 세/개정 동향에 대한 세계 각국의 높은 관심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11년으로 예정된 ISO 14066 표준의 제정이 완료되면 기존의 ISO 14064, 14065 표준과 함께 온실가스의 제3자 검증을 위한 표준체제가 완성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실가스의 검증시장은 기존의 CDM과 같은 프로젝트 기반의 온실가스제도나 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분야로부터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까지 확대되어 활성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국제표준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환경경제효율성' 및 '에코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도, 인증제도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며 표준의 개발동향에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술표준 2009.6